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정지숙 군산시의원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운영 도서관 계약 우선 체결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인해 지역 서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서점 육성과 지원을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지숙 의원은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조성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기초해 군산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점에 대해 지역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 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점 전용 면적의 1/10 이상 공간에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고 매년 1회 이상 독서동아리, 작가 강연회 등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의 한길문고와 예스서점, 우리문고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2019 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서점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작가 강연회를 비롯해 북클럽, 에세이

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어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의 조례 발의로 군산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관 계약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지숙 의원의 지역 서점 지원에 대한 조례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출판 및 서점업계도 환영의 뜻을



을 보내고 있다.

정 의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서점은 단순히 도시의 유통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정보가 태동하는 시발점인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기원 사진전을 익산역 역내 서쪽 복도에서 선보인다.

익산역의 어제와 오늘, 내일 감상

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기원 사진전

익산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익산역) 기원 사진전을 익산역 역내 서쪽 복도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진전을 통해 추석 명절 익산역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익산역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라시아 거점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사진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은 익산역 시대별 역사, 남북관계 진전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익산역이 선정될 경우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다양한 사진

등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민들의 열원이 집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익산시와 지역 차원의 다각적 노력으로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륙철도 거점역이란 인천 공항이나 유로스타(영국-프랑스 간 해저터널을 달리는 고속열차)와 같이 나라간 국경을 통과할 때 필수시설인 출입국관리시설(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인프라인 구축하고 있는 국제철도역을 지칭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경제부흥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스마트 그린 에너지 자동차 융복합 산업 육성 계획

군산시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강임준 군산시장 은 김경구 시장의, 광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관내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강소특구 종합계획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역 거점대학인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정하고 사업화 지원 지구인 군산국가산업단지 사업화 촉진 지구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여 스마트 그린 에너지 자동차 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군산 강소특구의 장점은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확정과 함께 항만, 철도의 TRI-PORT(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으로 기업유치가 용이하고, 새만금 주행사험장과 재생에너지 국가중점 실증연구단지 구축 등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사업화하기에 최적 지이다.

군산시는 강소특구 지정을 통해서 기존의 주력산업은 더욱 고도화되고 대학과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로 '단순 생산중심에서 R&D 기반의 첨단기술 제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달 초 전북도와 함께 군

산 강소특구 지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전국을 20㎢ 총량으로 한정하고 있고 특구당 면적은 최대 2㎢이며 연구소 기업의 세제 혜택과 기술 사업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심과 경쟁이 뜨겁다.

군산 강소특구 지정 여부는 오는 11월부터 전문가 심사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탄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한 만큼 특구 지정을 통해 군산이 재생 에너지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추석 대비 물가안정 관리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대책반 운영 ▲성수품 가격동향 정기점검 ▲물가안정 홍보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물가대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총괄 물가대책반을 설치해 각 부서와 연계,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성수품 단속행위, 가격 미표시,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태풍 '링링' 복상 대비

익산시, 비상체제 돌입

익산시는 지난 3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 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복상에 대비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철웅 부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철웅 부시장은 익산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 관파스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상륙하고 있는 태풍 링링과 관련한 산업현장 및 비닐하우스 시설물 안전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 주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예방, 주요 도로 사전예찰 등 각 부서들의 대처사항 및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점검했다.

이어 4일에는 익산시 시내권 침수 예방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목천포천과 유천배수펌프장·유천배수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태풍 '링링' 피해 대비 행정력 집중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군산시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시속 16km안팎의 속도로 이동하며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7일 오전쯤에는 서해안에 북상해 8일부터 8일까지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5일 오전 9시 관파소 읍면동장이 참가 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군산시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호우, 강풍, 풍랑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전통제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지대 주차장 및 상습침수지역 지하차도의 차량에 대한 통제, 대피, 견인조치와 급경사지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 공사현장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산사태와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등 배수시설물을 재 정비, 연안어선의 대피명령과 소형어선의 인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주변 배수시설과 안전펜스의 고정상태, 고층의 자재 적재 등 위험요소를 재 정비를 주문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주민 건의사항 시정 반영률 87.9%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부서별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열려

익산시는 올해 초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이 작년 대비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5일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현을 시장 주재로 2019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부서별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61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완료 195건, 처리중 209건, 장기처리 134건, 처리불가 74건으로

분류 및 집계했다.

특히 올해 건의사항은 도로 확·포장, 인도 및 농·배수로 설치, 하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많아 추정 예산확보 등 해결에 더욱 속도를 냈다.

그 결과 9월 현재 전체 612건 중 완료됐거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연차적인 처리사항을 포함해 진행 중인 것이 538건(87.9%)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건의사항은 74건(12.1%)으로 확인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처리불가 건에 대해서도 부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해결하거나 건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신뢰받는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의 애정 어린 충고와 소중한 의견을 결코 흘려놓아서는 안된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건의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총 612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